

# 都市와 現代建築

康 炳 基

(漢陽大學校工科大学教授, 工博)

近代建築의 成立과 發展의 全過程을 통해서 그 背景을 이루었던 것은 18世紀 後半 以後의 産業革命에서 시작되는 工業的 生産手段의 發達이라 한다면 現代建築의 成立에 關係해서 重要한 背景을 이루고 있는 것은 都市問題의 複雜化라고 하겠다.

近代建築의 경우와 같이 現代建築의 發展過程에서도 역시 都市問題라는 社會的 背景이 어느 程度의 影響力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 斷言할 段階는 못되나 그 可能性은 많다고 하겠다.

비약적으로 발달해가는 生産기술의 進보와 서구적 합리주의를 무기로 삼은 근대건축이 멀지않은 과거에 世界를 席捲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물량의 도시집중화현상이 가속화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세계적인 사실에 비추어 현대건축도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으로서 특징지워지고 양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근대건축은 건축공학적으로는 하나의 體系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그 완성의 영역을 넘어서 확대해 갈려는 자세를 보일 때도 있다. 달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공업수준이 근대건축의 生産기반으로서 부단한 발전을 계속해 왔다. 현대건축은 이러한 近代建築의 遺産을 이어받은 동시에 지금까지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社會的 環境에 둘러 쌓여 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구는 선·후진을 막론하고 어느나라도 모두다 도시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버렸다. 인구 도시화의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예컨대 소득의 격차를 이유로 드는가 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매력과 그 편리성을 가지고 이유 삼기도 한다. 소득의 격차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의 매력에 끌려 들어오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보면 현대건축의 도시적 배경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建築을 둘러싸고 있는 背景 밑에서 어떠한 狀況을 현대건축은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 複合的·多目的 建築의 出現

도시시대의 건축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형식은 복합적 기능을 가진 건축물의 출현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建築物은 住居, 商店, 學校, 事務所等等으로 可能한 경우가 많았다. 말하자면 建築이 가진 機能이 單一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規模의 大小를 막론하고 그 用途가 複合한, 말하자면 住居로서의 機能을 하는 部分도 있고 商店用途에 쓰이는 部分도 있으며 또 다른 部分은 事務所, 學校 等으로도 쓰이는 部分이 끼어있는 多目的한 用途의 空間이 複雜하게 얽힌 建築物이 出現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複合建築物의 出現은 建築自体内에서의 어떠한 動機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建築自体内에서 要請되는 多目的이라 함은 同一空間内に 時間性을 導入함으로서 여러가지 用途에 轉用할 수 있는 Sheeter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類似한 機能의 集合體를 만들므로서 經濟的으로 값싸게 實用空間을 提供하자는 動機의 結果를 말하는 것 같다. 近代建築의 偉大한 工學的 遺産은 建築自體의 어떠한 要請에도 대응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하겠으니 複合的·多目的 建築이 아무리 복잡하고 高度의 工業的 生産技術을 前提로 한다 하더라도 能히 잘 할 수 있다. 問題는 發議된 要請의 實現云云이 아니고 發議되는 理由가 나뉘어 있느냐는 認識의 問題이며, 이를 正當하게 把握하지 않고서는

現代建築이 걸어가는 길을 견잡을 수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되 普遍的 要請으로서 建築內部에서 複合的 建築에 對한 發議가 있었다기 보다는 都市化라는 存在基盤에서 나오는 社會的 要請의 必然的인 變化가 建築의 形態나 構成에 具現된 것이라고 하겠다.

都市에서 말하는 土地利用은 都市에 集中하는 人口와 利權關係로 더욱더 零細化되고, 複雜하고 難解한 所有關係로 말미암아 土地利用이란 計劃自体가 現實性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自律的인 都市의 生態에 對한 束縛이 되고 있다.

都市에 있어서는 이미 土地의 利用이 아니라 空間의 利用이 問題로 되었으며, 土地의 高度利用과 空間距離의 短縮化가 都市問題解決의 큰 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土地利用이란 語句가 주는 平面的 錯誤를 없애기 위해서도 土地利用에서 空間利用으로 바꿔 생각할 必要가 있고 事實에 비추어서도 그것이 훨씬 現實的이다.

土地利用이 空間利用으로 變貌한다는 것은 즉 都市內 空間이 建築物化되는 程度가 더욱 높아 진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기에서는 都市內의 土地를 제멋대로 利用하였던 手法과 思想이 그대로 고스란히 移植되어 있는 事實에 눈 감아서는 안된다. 여기에 構築된 空間을 利用하려는 사람들은 自己가 願하는데 採光이 있기를 願하고 天井의 높이, 各種 서비스 施設의 位置마저도 自己가 願하는 곳에 마치 지금까지 土地 위에서 自由로이 選擇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慾求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複合的 建築物의 가장 큰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建築物 空間의 利用者는 그 空間이 設定해 놓은 모든 物的 條件을 與件으로서 받아 드리는 受動的 立場에만 서 있었으나, 이제 土地를 自由로이 利用해 온 能動的인 利用者가 建築物 空間의 利用者 속에 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現時點에서 앞을 내다볼 때 都市空間의 高密度 利用이란 더욱더 切迫한 問題가 되어 가겠으며 따라서 大規模인 同時에 內包하는 空間이 多種多樣하고 그 空間의 利用者는 제멋대로 利用 할려고 드는 怪物的인 建築의 出現이 더욱 많아지겠다. 이를 怪物이라 해서 외면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實

로 都市가 必要로 하고 社會的 要請이 있다 하면 마치 우리의 祖上이 野性的인 動物을 길들여 家畜化한 先例와 마찬가지로, 이 怪物을 길들이는 方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의 靜的인 計劃理論과 美學을 가지고는 困難하다고 생각한다.

## 都市化하는 建築

都市에 出現하는 建築이 複合한 機能의 空間을 가지고 있다는 點을 앞에서 指摘하였다. 지금까지도 單一建築物內에 複合한 機能의 空間이 모인 것은 있었다. 住居용으로 쓰이는 建物은 大小를 막론하고 個個人的인 生活行爲에 대응하는 온갖 機能을 충당해 주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行爲의 主体는 一定하다고 前提할 수 있다. 또 單一機能의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그 建築物이 지니고 있는 機能이 都市에 깊이 關係하면 할수록 一定하지 않는 大多數의 主体에 對한 處理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Office Building의 設計에서는 Elevator의 Capacity나, 便器數나 복도의 폭, Entrance Hall의 넓이 등등은 그 建物에 在籍하는 사람을 基準으로 決定해 가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 建物을 中心하여 展開되는 都市的 活動에 關連하는 사람들에 대한 考慮가 더욱 必要하게 될 것이다.

百貨店이나 商店街는 이미 이 原則에 따르고 있다. 거기에서는 自己네의 從業員이 몇 名이란 것이 큰 問題가 되지 않고 몇 사람쯤의 손님이 오겠는가 하는 것이 興味の 對象이며, 그러한 前提下에 計劃이 進行된다. 아마 最初의 複合建築은 百貨店이 아니면 商街가 아닐까 생각된다. 거기에는 가지각색의 商人行爲가 들어 있다. 理想的으로 말하자면 百貨店의 하나하나의 카운터에 사람들이 들릴 때 마치 明洞거리에 가게를 내놓고 있는 하나하나의 가게에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效果를 얻고 싶다는 것이 計劃者의 心情이겠다. 通路는 街路의 性格을 질게 가지고 있으며 便所는 길가의 公衆便所와 같다

이러한 表現이 철저한 것은 商街나 “아케이드”라고 일컫는 建築物이다. 여기에서 복도가 바로

都市内の 길에 對應하고 있으며 모든 Pattern 이 明洞거리의 縮少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가장 都市的인 建築物들이 Pattern的으로 都市的인 構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點에서는 暗示的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都市的 構成과 “Pattern”을 가진 建築物이 많아지게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종전의 單一機能의 단순한 建築을 다루는 手法으로 Pattern만을 都市的으로 만들어도 안될 것이다. 몇가지 問題點을 들어보면 첫째 建物内の 道路와 外部의 都市道路와는 連續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建物에서 복도와 階段, 그리고 Elevator가 再檢討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天井 높이가 좀더 必要하다. 設備上의 效率와 建設費의 節約이 얕은 天井高의 原因이겠으나 그러한 條件을 充足시키면서도 天井高를 높이고 좀더 都市的 분위기를 造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기를 期待한다. 셋째로 都市의 道路가 그 폭이 다르고 또 같은 폭의 道路에 面하면서도 建物 앞에 餘裕를 두고 있는 수가 있듯이 都市的 性格의 建築物에서는 복도의 폭이 層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層에서나 같은 폭의 복도라는 것은 單一機能의 建物이 남겨놓고 간 遺物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都市的 建築에서는 建築이란 概念보다 都市的 概念이 앞서야 하겠으며 따라서 建築物이 바닥이기 보다는 人工的인 土地(人工地盤)이라는 認識이 導入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러므로서만이 建築이라는 認識에서 오는 束縛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 建築化하는 都市

한편 都市自体가 建築的인 樣相과 形態를 가지게 될 것 같다. 都市는 建築의 集積으로서 認識되는 實體이라는 點에 틀림은 없으나 建築 自体를 都市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現實이 군데군데 發生하고 있다. 이 現象을 建築의 都市化 現象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여기에서는 建築의 計劃, 目標가 처음부터 한개의 Community를 目標로 設定한 境遇를 나누어 생각하자 하는 것이다.

1937年 以來 르·콜부지에에 의해 提案되던 「住居單位」가 비로소 1952年 「말세이유」에 建設된 것은 氏가 最初로 人工地盤을 提唱한 것과 아울러 뜻이 깊다. 23種類의 變化가 있는 住居型式의 住

居가 337戶 들어 있고 商店街와 屋上의 어린이 놀이터와 幼稚園 等の 公共施設을 가진 이 建物은 하나의 작으막한 Community라고 생각하는 것이 正當한 理解라고 생각한다. 쌓아 놓은 住戶數가 많다고 해서 Community라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가 가지는 要素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建物의 形態를 가진 小都市라고 부를 수 있는 이 住居單位는 이어서 “난트”, “베를린” 등에도 세워졌다.

最近의 놀라운 예로는 美國 시카고市에서 建設된 一連의 建築의 小都市다. 1953年 시카고 江邊에 完成된 Marina City는 옥수수 같은 60층 높이의 아파트 2棟이 中心이다. 20層까지는 駐車場이고 21層까지가 住居部分이다. 一棟의 收容能力은 自動車 500台, 住居 450戶. 다음 이 아파트 곁에 10층 높이로 각층 1650M<sup>2</sup>의 事業所 建築物이 있어 거기서의 就業도 可能하다. 娛樂施設로서는 地下에 700척의 Motor Boat를 收容하는 施設이 있고 이 외에도 屋內 溫水풀, 屋內 體育館과 헬스·크럽의 施設, 보울링場, 年中無休의 屋外스케이트場, 約 1000坪의 屋上庭園이 갖추어져 있고, 이외의 서비스施設로서는 레스토랑, 美容室, 理髮館, 洋服店, 꽃가게, 書店, 新聞賣店, 란드리, 一般商店街, 郵便局까지도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곁에 있는 事務所에서 就業하는 경우 24時間의 生活 全部가 Marina City를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維持된다.

人間이 24時間의 日常生活을 營爲하는 곳으로서 最高의 높이였던 이 60층의 記錄은 1968年에 完工된 역시 시카고의 高級住宅地 Lake Shore drive에 Lake point Tower Apt.의 70층에 의하여 更新되었고, 이어서 역시 시카고의 존·행콕크 센터의 100층에 의하여 1969年 記錄이 更新되었다.

이 100층의 構成을 보면 위에서 부터 100층에서 98층까지의 3층이 기계실로, 97층은 커뮤니케이션·센터, 95, 96층은 各種 食堂街, 94층은 전망대와 商品展示場, 93층에서 46층까지의 48층이 居住用이며 703세대 1戶當 平均 規模는 約 40坪, 居住 總人口는 2500~2800名, 44, 45층에는 專門店 商街와 年中無休營業의 Pool이 있다. 41~13층의 28층이 office고 그 總面積은 99,000(M<sup>2</sup> 3萬坪). 12~6층의 7층分은 駐車場으로서 1,200台的 收容力을 가지고 있다. 5~1층은 쇼핑街와 로비, 社交施設 等이며, 地下로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地下 1층만이 商店 및 展示場으로 되어 있다.

능히 中都市에 비길만한 都市的 施設을 갖추어 있는 都市自体 或은 都市内の 하나의 地區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앞으로는 土地의 高度利用이란 課題의 解決이 都市問題의 中心課題로 登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때에는 지금 본바와 같은(現在로서는 特異한 例겠으나) 土木的 스케일을 가진 建築的 都市가 建築과 都市 사이의 中間的 存在로서 많이 出現하게 될 것이다.

## 都市를 둘러싼 現代的 狀況

이러한 都市에도 비교될 수 있는 程度의 建築物을 可能케 하는 構造上의 方法論은 都市 自体에도 큰 影響을 주고 있다. 즉 말하자면 Mega Structure 속에 Minor Structure를 Built-in 或은 Plug-in하는 方法이 都市的 規模와 內容을 가진 建築物에 適用되고 있는데 여기에 前提되고 있는 假說은 人間의 生活周期 및 住居가 生活에 對應할 수 있는 期限은 짧은 周期로 變하나, 이 生活의 基盤이라고 할 수 있는 都市의 施設과 그 骨格은 훨씬 긴 주기를 가지고 變化·成長한다는 것이다.

都市에도 위와 같이 變動의 주기가 짧은 構成分子가 있고 긴것이 있다는 事實認識은 옳다고 생각된다. 또 變化成長의 주기가 다른 都市內 施設을 劃一的인 規制方法으로 콘트롤하려는 것은 바로 成長과 變化의 바탕인 都市에 있어서 都市의 目標을 固定시켜서 規制·誘導한다는 것이며 結果的으로 都市內의 矛盾만을 激化시키지 根本的인 問題 解決策이 될 수는 없다는 主張에는 一理가 있으며 오늘날의 激動하는 都市의 狀況을 反映하고 있다.

1959年の 第10回 CIAM席上에서 지금까지의 Master Plan 이란 都市計劃의 手法은 그 固定性和 閉鎖性 때문에 攻撃의 目標가 되고 Smisson 夫妻를 中心으로 한 젊은 世代들은 새로운 方法論을 提示함으로써 반기를 내걸었고 이때를 마지막으로 近代建築과 近代都市計劃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CIAM은 終末을 보게 된다. 소위 TEAMIO의 탄생인데 그들은 都市라는 全体와 그 안에 存在하는 여러가지 構成分子 特히 部分으로서의 建築과의 調和의 必要性을 否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成長과 變化의 渦中에 全体的 調和를 이

룰 수 있는가에 對해서 要旨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都市에는 끊임없이 變化하는 部分과 그다지 變化하지 않는 部分이 있다. 變化하지 않는 部分을 下部構造라고 부른다면 이 下部構造를 長期의 成長變化에 對해서도 充分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면 建築같은 上部構造는 이 下部構造 위에서 얼마든지 自由로 이 成長과 變化를 거듭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下部構造가 마련하는 어느 程度의 秩序가 維持될 것이다. 이렇고 나서 成長과 變化를 固定化 해버리는 現代都市의 本質에 어긋나는 方法을 취하지 않더라도 秩序있는 新陳代謝가 可能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까지의 Master Plan 대신에 이러한 下部構造에 依한 都市의 制御效果에 期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主張 밑에 各國의 젊은 世代의 建築家들이 많은 提案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提案 實驗의 段階에 있다.

建築의 分野에서는 이러한 概念과 認識 위에서 여러가지 實驗的인 方法論이 提示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樂觀的인 技術萬能主義에 끝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生活하는 人間에게 現代都市와 建築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란 原初的 出發點에 돌아가서 人間을 都市構成의 中心的 存在로 位置시키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있다.

